무 소 속 대 변 지

제 3 5호 【루계 제 2 6 6 1 호】

주체 1 1 0 (2021)년 8월

토요일

음력 7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일 떠 세 우 자 !

설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더욱 과감히

남조선에서 내외의 강력한 요 구와 성토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불신의 굜을 더욱 깊어지게 하 야합밑에 끝끝내 강행하였던 합 동군사연습이 일단 막을 내리

셔진것이 아니며 평화가 도래한것 습의 규모를 조금 축소했다고 해

그 무슨 규모의 축소나 형식의 적, 침략적성격이 달라지는것은 변경이 결코 합동군사연습의 침 아니다. 략적성격을 좌우할수 없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주변나라들도 경계하는 위험천만 계획과 그 실행준비를 완비하기 한 전쟁소동인것으로 하여 남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예비연습 는 평화의 암적존재인 남조선강점 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폭염을 _을 올해에 이어 래년에도, 이후 _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기 위 무릅쓰고 《합동군사연습중단》, 에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겠다는 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 《전쟁연습반대》, 《평화수호》 를 피터지게 웨치며 투쟁에 펼쳐 나섰던것이다.

인 전쟁연습을 《방어적》인것으 수 없다. 로 분칠하며 저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할 근본문제, 급선무는 바로 이 한 정의로운 위업이며 그 막중한 모지름을 쓰고있다.

쟁연습은 비단 오늘에 와서 처음 연습을 끝장내는것이다. 벌어진것도 아니다.

《방어적》으로 묘사했지만 그러 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한 궤변으로 화약내를 짙게 풍 기는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울수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 정세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범죄

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과 전 쟁위험을 중대시키는것으로 이 어져왔다. 이처럼 대결과 긴장격 을 지배하려는 범죄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군사연습이 끝났다고 화의 악순환이 세기를 이어 되 부터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하여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가 풀이되여왔는데 오늘에 와서 연 서 동족을 겨누고 하는 공격

내외호전세력이 《방어적》이라 살아오고있다. 고 계속 떠드는것은 공화국에 대 철두철미 동족을 목표로 하고 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 음흉하고도 로골적인 강변이 아 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 를 위협하는 또 어떤 전쟁연습 한다. 선호전세력은 아직까지도 침략적 굉음이 어느 시각에 울릴지 알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해결하여야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 땅의 평화와 겨레의 생존을 위협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원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전쟁연습 적으로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 다른 누가 은 해마다 벌어져왔고 그때마다 룩하자면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 지켜줄수도 없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과 각계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것이 아니라 동족사이의 갈등과 에 항시적으로 긴장격화와 전쟁

전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책동때 문에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평화와 안정이 깃든적이 없었으며 우리 겨레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남조선강점 미군이야말로 전쟁 의 온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 쳐나서야 할것이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이 것이다. 이번 연습은 끝났지만 평화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여야

우에 지워져있다.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이번에도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 없었다. 그리고 연습으로 그친 은 평화의 암적존재이고 이 땅 적인 합동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분발해야 할 오늘이다.

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 런일 벌리였다. 자기 손으로 평 화로운 삶을 쟁취하며 평화와 통 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 한 이러한 의로운 투쟁들은 앞 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확대되여 야 하다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소중 히 여기는 온 겨레가 반전평화 수호의 기치밀에 침략적인 전쟁 모를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속에 연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드높일 때 내외호전세력의 전쟁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

> 평화, 아름다우면서도 숭엄함 이 깃든 소중한 부름이다.

> 오늘 우리 겨레처럼 평화에 대 한 절절한 념원과 격렬한 정신으 로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도 드물

세계에 대한 패권야망으로 꿈틀 거리는 외세의 전쟁연습, 전쟁소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동도 평화에로 향한 우리 겨레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 강의한 정신과 힘을 절대로 억누 를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 시대적과제를 해결할 중임도 다 결된 힘으로 침략적인 전쟁연습, 남조선에서 이러한 범죄적인 전 하는 외세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른 누가 아닌 우리 겨레의 어깨 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그 어떤 위협도 기웃거리지 못하 고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 는 공고한 평화를 기어이 이룩하 여야 한다.

> 후대들에게 자유롭고 당당하 고 평화로운 삼천리조선반도를 물려주자면 우리 세대가 더욱

- 국제 사회계의

《김일성주석께서 하시였다. 는 일찌기 청년들 고 전진시키는 혁

명투쟁의 선봉대, 주력부대로 내세 우시고 항일의 기 치아래 굳게 묶 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통을 이어 새 조 크 렌즈》) 선건설과 조국해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

국제사회는 사 회주의조국의 영 훌륭히 수행하고 을 하고있다. 있는 조선청년들

이 펼쳐가리라는 전선) 것을 확신하고있

라지오방송)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년운 겨왔다. 동의 전통은 김정일각하에 의해 드팀없이 계승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해놓은 된다. 을 나라와 민족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기뻐 물들에 〈청년〉이라는 이름도 달아주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 크나큰 사랑 원장) 과 믿음으로 후대들을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받을 믿음직한 어세워 조선해방 계승자들로 키우시였기에 조선 의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 하여 헌신하는 훌륭한 청년들 조선청년들은 로 자라날수 있었다.》(우간다 항일의 고귀한 전 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

《오늘 조선은 김일성주석과 로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다. 방전쟁, 전후 사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미래관, 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조국보위에서 자 기의 사명을 다하고있으며 사회 예로운 수호자, 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 이 오늘도 래일도 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이 있어 의 정신도덕적부패가 심각한 사 영원히 나라의 존 조선의 위용은 더욱 빛나고있 회적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 엄과 위용을 높 다.》(방글라데슈사회주의학생

다.》(캄보쟈국가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조선 풍모가 국제사회에 시사해주는 청년운동사에 영광의 자욱을 새 의미는 자못 심오한것이다.

> 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야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 또 한 분 의 위 인 이 신 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선청년들에게 있어서 행운으로

목소리 -

걸출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 의 운명을 개척하 하시면서 그들이 일떠세운 창조 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 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이 부 럽다.》(세계민주청년련맹 전 위

>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서 만년언제를 쌓으며 스스로 세운 청춘대학과정안에 깨끗한 량심 의 점수만을 새겨온 청년들과 부 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된 〈처녀어머니〉, 준엄한 정세속에 서 조국보위에 한사람같이 펼쳐 나선 수백만 청년들, 이것이 바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회주의건설에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시는 김정은각하의 사랑의 품 청년중시를 변함없는 전략적로선 이 이런 청년대군을 낳았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 강국건설의 척후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 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 대로서의 역할을 기 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역할 덕품성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청년들 인생관에 물젖은 청년들이 타락 과 범죄의 길을 걷고있는 오늘 《조선청년들은 대를 이어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은 조 를 가진 청춘의 나라이다.》(로씨

본사기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위대한 자욱을 첫 새 기신

년학생들의 무도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61돐 경축 청 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 회장들에는 혁명의 새 승리 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위대 한 강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 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였다.

노래 《조선의 행운》이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의 춤 바다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의 그날로부터 장구한 기간 주체의 혁명무 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 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가 슴뜨겁게 되새기며 청년학생 들은 《위대한 선군령장 만 만세》, 《우리 장군님 제일 이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의 환희》를 비롯한 노래들이 련이어 울려퍼지는 속에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 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 설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 에는 당의 품속에서 영예로 같은 흠모의 정이 무도회장

《청춘송가》, 《옹헤야》 등의 노래에 맞추어 경쾌하 고 박력있는 춤률동을 이어 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 껏 어려있었다.

들에 뜨겁게 굽이쳤다.

운 사회주의건설자로, 위훈 창조, 긍정창조, 문명창조 의 기수, 미덕과 미풍의 선 구자로 보람찬 삶을 수놓아 가는 궁지와 자부심이 한

전세대 청년들이 지녔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과 애 국의 전통을 이어 인민대 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 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 내여갈 애국청년들의 기상 을 담은 노래 《우리의 전

호》, 《사회주의 지키세》 는 무도회분위기를 더욱 고 조시켰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 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 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 진행 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서

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 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관, 중앙비상방역부문의 해 정되였다.

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 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를 소집함에 대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산

림법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 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 수정보충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산림법을 수정보충 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11 였다.

군국주의비통을 물려주려는 방동

아픔, 치욕과 분노를 되새겨주 고 각성과 의지를 가다듬게 하

는 달이다. 1907년의 조선군대해산도,

《경술국치일》로 기록된 1910년의 《한일 합병조약》의 날조도 8월에 일어난 비극 들이다

일제의 40여년간 식민지통치는 1945년

8월 15일 무너지게 되였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였다고 하여 일본 의 령토팽창야망, 군국주의정신이 없어진

것은 아니였다. 얼마전 일본이 그 무슨 어린이용《방위 백서》라는것을 인터네트에 공개한것만 보

아도 그러하다. 7월에 발간된 《방위백서》의 내용을 어 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요약했다는 어린이용《방위백서》에서 일본 은 저들의 방위능력과 주변나라들의 내부 정세, 그 나라들과의 령토분쟁실태, 미국 과의 동맹강화 등으로 군사대국화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조선반도문제, 특히 재침야 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북위협》설과 《독도령유권》 주장도 고스란히 담았다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정신으 로 무장시켜 과거 《황군》의 후예들로 키우기 위한 《지침서》, 여기에 어린이 을 철저히 경계하고 더욱더 각성을 높이라 용《방위백서》의 범죄성과 위험성이 있다 고 일깨워주는 8월이다. 고 해야 할것이다.

대들은 해마다 당국이 벌려놓 는 《다께시마의 날》 기념행 사와 재일본조선인들을 대상으 로 감행되는 린치, 《북위협》

설에 빙자한 전쟁연습소동을 시도때도 없 이 겪고있다.

초, 중학교의 교과서들에도 과거 일제 의 일본군성노예문제, 조선인강제징용문 《독도령유권》문제 등이 저들의 구 미에 맞게 서술되여있다는것은 알려진 사 실이다.

장차 일본의 미래를 이끌고나갈 새 세 대들에게 과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 하던 조상들처럼 《대동아공영》의 망상으 로 령토팽창야망에 날뛰다가 《천황》을 위해 《사꾸라꽃》처럼 《옥쇄》하여 야스 구니진쟈에 묻히라고 설교, 강요하려는것 인가.

그 《방위백서》라는것이 일제패망의 날 인 8.15 다음날에 공개한것이여서 더욱 혐 오스럽고 파렴치한 섬나라이다.

과거의 침략전쟁은 아시아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하면 서 《보통국가》로서 그 무엇이나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뻔뻔스럽고 음흉한 궤 변이고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도 아랑굣없이 꿈 틀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

원자단에 의한 조선인희생자들을 추 모 햐 모 임

죠 에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 희 생된 재일조선인들을 추모하 는 모임이 9일 도꾜에서 진

행되였다. 김익순 총련 니시도꼬본 부 위원장, 하수광 조선인강 제련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 협회 회장, 김진호 《히로시 마현 조선인피폭자협회》 리 사장을 비롯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고 그들은 밝혔다.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발언자들은 과거 일제에 게 랍치되여 일본에 끌려온 동포들이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갖은 고역에 시달리고 더우기는 원자탄폭격으로 헤 아릴수 없는 불행을 당하였 다고 말하였다.

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죄 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과거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공화국과 재일동 포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적 대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과거에 저 지른 반인륜범죄의 진면모를 밝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사 그러나 일본정부의 민족 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하 차별정책으로 동포피해자들 여 런대투쟁을 계속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존엄 떨

다른 그 어디서도 들을수 없 고 오직 조선에서만 들을수 있는 고귀한 시대어이다.

청년강국은 사람들이 지 구상에서 흔히 보는 범상한 나라가 아니다. 사상과 정신 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 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 한 힘에 의하여 사회가 들 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 그것으로 하여 전도가 끝없이 밝고 양양한 나라일 때에라야 청년강국이라고 말

공화국은 청년들이 특별 히 강하고 고상한 정신세계 를 가진 나라이다.

올해에 흘러온 날과 달 을 돌이켜보자. 공화국에 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진행되고 여기에 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이 작 성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력사적인 당대회의 결정

을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 실 천해나가고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당대회이후 지금까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청년들 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 원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다 지역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올해에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진 청년들의 탄원소식만 보아도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중요 공장, 기 업소, 탄광과 농촌, 최전연 섬초소와 산골마을학교, 사 회주의대건설전투장으로

는 부모형제와 동무들을 뒤 두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하여 진출하는 이런 청 년들이 얼마나 미덥고 자랑 스러운가.

이뿐이 아니다. 새로운 5개 년계획수행을 위한 오늘의 진 군길에서 로력혁신자로, 창의 고안의 명수로, 아름다운 미

소유자로 자랑뗠치고있 는 사람들도, 조국방선을 철 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도, 세기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려갈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피타는 훈련을 이어가 는 체육인들도 다름아닌 청

이 지구상 곳곳에서 수 많은 청춘들이 속절없이 시 들어가고 범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을 때 조선 의 청년들은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해 청춘의 구슬땀 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는 청년강국의 존엄을 이 하 늘아래에 빛나게 새겨주신분 이 바로 김정은령도자이시다. 그 이 께 서 는 새 로 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 지게 될것이라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 고도 그해의 청년절에는 평양 에서 성대한 경축행사도 진행 하도록 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서 축하문까지 보내주시였다.

언제나 청년들을 믿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값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속에 청년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고있다.

주체104(2015)년 9월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높이 솟 아오른 1호발전소언제를 여러 곳에서 보아주시고 올려다보 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 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옹위 하여 성새, 방패를 이룬 청 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 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 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언제 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 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

이이라는 가슴뜨거운 말씀 을 하시였다.

청년들의 위훈을 금은보화 에도 비길수 없는 더없이 귀 중한 재부로 여기시며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예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 였는데 우리는 청년들을 훌 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십 만자루, 백만자루의 품도 아 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나라일 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 신 속에서도 청년동맹일군들 조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청년 들의 대회합이 있을 때에는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축하 문과 서한도 보내주시여 청 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하기에 한 해외동포는 방 문기 《내가 본 황홀한 청년 강국의 세계》에서 《저 하 나의 안락이 아닌 조국과 인 민을 위해 바치는 애국의 땀 에 향기가 있다는 북부조선 청년들의 향기관, 조국의 부 강번영을 위해 청춘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그들의 인생관에서 나는 창조의 거 인, 사회주의강국의 주인공 들을 똑똑히 보았고 인민의 꿈은 이렇게 눈부시게 꽃피 고 호함지게 무르익어가고있 음을 깊이 절감하였다.》라고 피력하였다.

청년들의 모습에 오늘뿐이 니라 먼 래일의 국가의 모습 이 비낀다.

자기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 를 앞장에서 관철해가며 부강 조국건설의 주력군으로 애국 의 구슬땀을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 고있어 나라가 강하고 미래가 밝으며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 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굳센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였다.

A 0

민족의 해방자, 구세주 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펼쳐본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교록 《세기와 더불어》(항일혁명 편 1-8권)는 조선의 근대 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 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조국해방의 기쁨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치 던 1945년까지의 기간을 시 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회고록을 관통하고있는 기 본사상은 이민위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의 머리글에서 《이민 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 긴다는 이것이 자신의 지론 이고 좌우명이였다고,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 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자신께서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한생을 인 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 활의 본령이였다고 서술하시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믿 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한다는 철리를 지니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 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생의 자욱자욱이 생 동한 화폭으로 서술되여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위인 들도 많았고 이름난 정치가 들도 있었다. 그들속에는 자 기의 인생체험을 나름대로 서술한 자서전이나 회상록을 써낸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력사에 이름을 남 긴 그 어느 위인, 그 어느 정 치가들의 회상록이나 자서전 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처럼 인류 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 혀주는 대백과전서로서 커다 란 감화력과 견인력으로 만인 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은 례가 있었던가.

회고록의 갈피갈피가 그것 을 말해주고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탄생 하시여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성장하시며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 성을 새겨안으시던 어린시절, 민족이 당하는 설음과 비분 을 안으시고 일제에게 빼 앗긴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돌아보시면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던 못 잊을 그날에 대한 추억 도 있다. 촉한에 걸리시여 빈 사상태에 빠진 속에서도 조 국과 인민앞에 지니신 사명 감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며 몸소 지으신 노래 《반일전 가》로 대원들을 원쑤격멸에 로 불러일으키시던 천교령의 눈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 으며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엄혹한 위기를 한몸으로 막 아나서시며 주체로선을 견지 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

날도 있다. 그이께서 믿고 의지한것은 인민이였다. 인민의 힘을 조 직동원한다면 능히 강도 일 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 방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 념이였다.

한 대사상전을 벌리시던 다

홍왜회의의 잊을수 없는 나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경박호기슭에서》, 《새 사단의 탄생》, 《조국광복

과장도 없이 평이하면서도 주옥같은 문장들과 간명하 면서도 뜻이 깊은 어휘들로 하여 더더욱 독자들의 마음 을 사로잡는 가지가지의 만 단사연들을 더듬어보느라면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항일전의 가시덤불길을 뚫고나가시던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 한생이 눈물겹게 어려와 저 도 모르게 숭엄한 감정에 휩 싸이게 된다.

우리 겨레가 오매불망 소원 하던 해방의 기쁨은 이렇게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교록 《세기와 더불어》는 이민위천 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으 시고 무장으로 강도 일제 를 때려부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항일의 전설적영웅 민족재생의 은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비상히 풍부 한 내용들로 집대성되여있는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인간이 삶과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 아야 할 참된 진리를 가르 쳐주는 더없이 귀중한 교과 서이다.

하기에 회고록을 읽어본 사 람이라면 누구나 말한다.

《회고록의 글줄마다에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빛발 친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은 인민칭송의 대서사시이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는 참다운 인생관을 가르쳐 주고 래일에 대한 신심을 안 겨주는 교과서이며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읽 어야 할 필독문헌이다.》…

우주를 깨우치고 세기를 밝히는 심원한 진리가 있 신봉할 철학이 있으며 인간 의 운명개척의 옳바른 지침 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오늘도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은 물론 지경과 대양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경 탄과 찬사속에 널리 탐독되

장 인 철



광범한 채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강강안에 특 색있는 다락식 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

만에 자기의 아름다운 자 드러내고있다. 수도의 명 당자리에 현

풍치수려한

수도의 보통

택생

대적인 다락 인가. 식살림집을 지

고 주택지구의 이름을 《보통강강안다락 단장한 집에서는 왕이나 귀 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된 식주택구》로 명명해주신 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 대, 어느 력사에 있어보

시하시면서 여기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 이라도 있을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세심한 가르치심

그러시면서 이곳의 명칭 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 는 뜻으로 《경루동》이라 려와 교통수단을 리용할수 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 있게 걸음길도 잘 내주고 시며 해당 부문에서 이를 교통수단배치도 합리적으로 태를 완연히 심의해볼데 대한 지시를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 주시였다.

> 《경루동》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어 인민들에 훌륭한 집을 안겨주고싶으 리라. 게 안겨줄 신 그이의 심정이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 구상을 펼치시 담겨진 이름이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바로 이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는 얼마전 또다시 이곳 건 이런 희한한 집이 로동자, 그날에 세인이 부럽도록 어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깨춤을 들썩이며 새집들이 그이께서는 보통강강안지 근로인민대증을 위해 건 를 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구에 140여일전 모습을 찾 설되고있으니 이처럼 복 아볼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 받은 인민들이 어느 시 안겨온다.

옥에는 티가 있을지언정 인민들에게 안겨줄 새 집에 는 자그마한 티도 허용하지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에돌 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 지 일일이 세심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머지않아 여기에는 은구 슬, 금구슬같은 아름다운 인민들에게 옥으로 빚은 황홀경의 주택구가 펼쳐지

민을 위해 바치시는 헌신 예로부터 옥이나 금으로 의 구슬땀이 그대로 인민 듯 아름다운 구슬다락들 겨운 모습들이 눈에 선히

리 경 월

주체84(1995)년 7월 어느 조하는것이 좋다고 가르치시 이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 포를 묶어세우는 사업을 전 그렇지만 그 모든것을 허물 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였다.

는 위대한 수령님 서거 1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 고비들을 이겨내며 승리 갔다. 조국에 온 총련중앙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체대회준비사업이 어떻게 되 있었다. 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여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대 깨워주시고나서 총련은 변 들이 주인이 되여 벌려나가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 게 높뛰였다. 회에 내놓을 총련중앙위원회 화된 현실과 세대교체의 요 야 하는 애국애족운동인것만 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헛들 - 총련중앙일군들은 신심에 직전개되여야 한다는것을 강 담겨져있다고 밝혀주시였다. 는 《민단》, 미조직, 귀화동 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장군님의 교시에는 시련 지나온 나날들이 스쳐지나 없고 이미 총련에 들어온 사 고 우선 같은 피를 나눈 내 하여온 재일조선인운동과 오 사실 분렬된 나라에서 전 지 못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늘의 현실을 심오하게 분석 진하여온 우리 나라 해외교 나타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총련 제17차 전 하신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포운동의 복잡성과 간고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 의 구성은 참으로 천태만상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 것이였다. 총련증앙의 한 일군으로부 일조선인운동이 승승장구하 이였다. 터 대회준비사업정형에 대하 는 비결에 대하여 다시금 일 보고를 잘 준비하는것이 중 구에 맞게 동포군중과의 사 큼 해외교포조직들은 응당 어 조국과 민족앞에 떳떳이 넘친 어조로 위대한 장군님께 요하다고 하시면서 보고에서 업을 통이 크고 폭이 넓게 히 모든 사람들과 대상하여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자기 사업의 폭을 넓혀 총 는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사업해야 할것이였다. 애족의 구호밑에 각계각층 자신께서 서한에서 총련과 . 하지만 지난날 총련은 이 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 포들을 다 망라하는 대중 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망 재일동포들에게라는 표현을 렇게 큰뜻을 품고 아량의 폭 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적애국조직으로 만들고 재일 라한 대중적해외교포조직으 썼는데 이것은 총련뿐아니라 을 넓힐 생각을 미처 하지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신념 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로 건설되여야 하며 그의 활 《민단》, 미조직, 귀화동포 못하였다. 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 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뜻이

으로 하여 우리 해외교포들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는

해외교포운동은 이런 사람 장군님이시였다.

아안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개하지 못한것은 말할것도 로 보거나 죄로 탓하지 말

이러한 실태를 남먼저 헤아 질을 많이 하여 다 소화해야 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 런을 명실공히 모든 재일동 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를 마련할 굳은 결의를 다 그러다보니 총련조직들에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 지였다.

람들과의 사업에서도 너그럽 민족, 내 동포로 아끼고 포 섭하며 설사 흠이 크다고 해 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새김

(바로 이것이다!)

총력일군들의 가슴은 세차

본사기자

난 참 과 刮 d

날 새벽 4시경이였다.

🔼 같이 심려의 밤을 지새우시 렸다. 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동무의 목 푹 자보고싶다고 하시였다.

였다.

자신의 피곤은 생각지 않으시고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63(1974)년 여름 어느 오히려 한 일군의 피곤부터 걱정 하시는 수령님께 일군은 아직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매일 주무시지 않으시는가고 말씀드

수령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 는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백두 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 깊은 잠에 들었던 그 일군 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시키 은 전화종소리에 깨여나 송 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다고, 나 도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니 동무도 피 그러시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못 곤한 모양이라고, 조국통일 했다고,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 이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교시하시 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시며 통일 만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통 위 해외본부 의장이였 그이의 평가의 말씀에 감동된 던 림창영선생이 해 그는 온 겨레가 운명과 미래를 맡

그이께서는 동포애의 정을 나누시 손잡고 나가자고 격려의 말씀을 · 며 그더러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 하시였다.

언제인가 범민련 로이고 선각자라고 하시였다.

일 로 외의 여러 동포들과 기고있는 장군님께서 분초가 새함께 평양에 왔으 = 0 - 2 1 = 1 함께 평양에 왔을 로운 국사를 미루시고 무상의 영때였다. 광을 베풀어주시여 송구한 마음 위 대 한 을 어찌할수 없다고 말씀올렸다. **등**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조국을 방문하고있 보다 더한 국사가 기가 되다. 전 그를 만나주시 는가 하시며 7천만겨레의 최대의 숙워인 조국통일위업앞에서는 모 의 **며** 였다.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앞에서는 모 년로한 몸으로 먼 두가 심신을 바칠줄 아는 전사 곳에서 오시느라 수 가 되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 고가 많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네신 시면서 통일성업의 길에서 함께

이든 한품에 안 숙역시도 짜표 시크 은 삶으로 빛내 도의 뜻을 표합니다. 전 시 은 ==== 주는것이 민족의 이 위대한

9월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 **정 은** 는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 주체101(2012)년 9월 5일

조금이라도 이바 였다.

조보 아 사랑을 주고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녀 일으켰다. 죽어서도 값높 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

문선명선생은 서거하였지만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지 어버이의 위대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표시하시여 고인의 령전에 품이다.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 화환을 보내시였다. 주체101(2012)년 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 한편 이날 문선명선생에게

목 화 조국통일을 위해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 평가와도 같은 동포애의 정이 조금이라도 이바 여다 민족의 번영과 선생의 서거와 관련하여 그의 문선명선생의 한생에 대한 넘치는 경애하는 그이의 조전 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

어 이틀후에는 문선명선생의

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 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본사기자

생 을 막 9 1 평 V 화를 수

(E)

タ

하

것

은

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날에 진행된 《광복 76주년 한반 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에서 는 《광복 76주년, 해방과 함께 도래한 분단을 성찰하고 한반도자주통일의 미 래를 약속해야 할 오늘 겨레를 적으로 규정한 전쟁연습이 결국 시작되였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있는 한반도 의 상황을 그저 지켜보지 않겠다는 마 음으로, 한반도운명개척의 주인이 되 겠다는 의지로 행동해야 한다.》, 《전 쟁과 분단이 낳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구시대적전쟁연습과 반인권적제재를 당 장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진보적청년단 체인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은 《청년 의 미래, 조국통일로 개척하자》라는 제 목의 격문을 발표하여 《지금 청년들 의 미래가 암울한 리유는 무엇인가. 바 로 반세기 넘어 지속되고있는 분렬때문 이다.》, 《통일실현이야말로 청년의 운 명을 근본적으로 개척하는 지름길이자 만능해법이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전 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고 조시키고 평화통일에 훼방을 놓는 미국 과 당국을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강 렬한 지향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 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외세는 장 장 70여년의 기나긴 세월 민족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강요해오고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 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도 그러한 반 와 민족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해나가 평화, 반통일책동의 일환이다.

이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조선반도

지난 8.15를 맞으며 남조선에서는 각 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 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으 로 되고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 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에 편승하는 남 조선당국의 처사 또한 민족의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 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 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 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자 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 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부터 중 지되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초미의 민족사적 과제로 나서고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인은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민 족이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단합하여 민 족의 최대숙원을 이룩하여야 할 오늘 날 동족이 동족을 반대하여 정세를 긴 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것은 민족분 렬을 강요하는 외세의 무분별하고 모 략적인 민족리간책동에 동조하는 자멸 행위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전쟁책동에 높은 각성을 가 지고 대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위험을 막고 이 땅의 평화 야 할것이다.

최 명 숙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실현을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 해외에 서 고려민주런방공화국창립방안 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가 고있는 속에서 통일을 념원하는 전민족의 총의를 모으고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의 힘으로 고려민 주련방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현 실성있는 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 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은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줄기차게 벌리면 서 고려민주런방공화국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1980년 11월 11일 공화국의 제 사회단체들은 련석회의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서는 민족의 총의와 온 겨 레의 힘을 모아 고려민주련방공 화국을 창립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적당 한 수의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 족공동의 협의기구를 시급히 내 올것을 제의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는 남조선과 해외의 5 300여명 의 대상들에 대한 편지발송사업 결속지으면서 남조선과 해외 을

의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이 공화 국의 획기적인 제의에 적극 호응 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이 제안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 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 을 받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것 을 막아보려고 1981년에 들어와 북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 적평화통일기구의 상설화가 절실 하다.》고 하면서 이른바 《평화 통일정책자문회의》라는 관제기구 를 조작하고 그 무슨 《남북당국 최고책임자의 호상방문》제안이라 는것을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군사파쑈독재《정권》 은 비렬하게도 공화국정부가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대상들을 거의나 다 공직에서 추방하고 각 종 《죄명》을 씌워 체포, 투옥 하였으며 가혹하게 탄압하고 박해하였다. 한편 외세와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 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였으며 미국상전을 찾아가 저들의 《상 호방문》제안에 대한 지지를 간

공화국정부는 1981년 1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명 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 광주시민들의 피로 얼룩진 반역의 행적을 걸어온자가 나 아무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 그 무슨 《상호방문》을 들고나온

새것에 민감하고 진

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

대중을 하나로 결속하

는것은 해방직후의 복

잡다단한 정세하에서

새 사회건설, 통일적

인 자주독립국가건설

을 위해 특별히 중요

한 문제로 나섰다.

것은 그자체가 민족의 절절한 념 원을 희롱하는것이며 신성한 민족 의 위업을 모독하는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격 에 맞지도 않는것을 들고나올것 이 아니라 옳바른 립장부터 가져 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고 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 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1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 제67차회의를 열고 정당, 사 회단체들의 런합성명을 발표하 였다.

런합성명에서는 통일을 지향하 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대표들 과 해외동포들로 구성되는 민족 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을 비롯하여 통일과 관련되는 제 반 문제들과 기타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것 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공화국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민족통일촉진 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비적조치로서 대회에 참가하기 를 희망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 층의 대표들사이의 쌍무적, 다무 적대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위하 여 남조선과 해외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 을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은 1982년 2월 10일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 여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들의 100인런합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 하였다.

련합회의는 과거여하에 관계없 이 통일에 뜻을 둔 개별적정치 인으로서 해외인사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으로 구성 하며 회담형식은 북과 남사이의 쌍무회담이 아니라 모든 인사들 이 거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북과 남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론의하는 다무적원탁회담으로 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100인련합회의는 당시 조건에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성 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민주주 의적인 통일협상으로 될수 있었 으며 민족대단결의 마당으로 될 수 있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위 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제안들 과 조치들은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응 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의 이 제안과 조 치들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 국을 타개하고 진정한 통일협상 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발 기로서 하나의 민족적리념밑에 온 겨레의 힘과 슬기를 집결하여 통 일에로 나아가기 위한 애국지성의 발현이였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민족자본가가 공화국의 대의원으로

남녘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리종 만선생은 여러 기회에 북행길에 올 랐지만 그 뜻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가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찾 아갈 용단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평양에 갔다온 려운형선생과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거족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 온 김구선생으로부터 민족의 태양 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 온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 리 민족이 떠받들어야 할 유일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민족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 로 나가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로 평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조선 민족의 힘을 한데 모아 통일독립 을 하자는 립장이시다!》

《나는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란 협애한 사람인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도량이 크고 판대 하기 비길데 없다는것을 알았소.

김장군님과 같으신분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라는것을 나는 이번 에 내 눈으로 실지 보고서야 진 심으로 느꼈단 말이요.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 시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이렇게 자신의 심증의 고백을 터 치는 려운형선생과 김구선생의 말 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론 에서 리종만선생은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동경 과 휴모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였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였다.

선생을 더욱 분격하게 하였다. 리승만은 선생이 운영하던 《독립신보》가 자기들의 정치내 을 좀처럼 가실수가 없었다. 막을 폭로하였다고 하여 강제로

페간시키고 광산개발을 미끼로 선 생을 리용하려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그에게서 산업운 영권을 빼앗아 매판자본가들에게 넘겨주었다.

바로 이러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민주 주의전선결성대회에 그를 불러 주시였다.

개가죽을 쓰고 굴욕을 참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지 조를 지키는 보람속에 사느냐 하 는 갈림길에서 선생은 환갑나이 에 많은 재산과 사회적지위, 소중 한 가정을 뒤에 두고 혈혈단신으 으로 갈 대용단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남조선 의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력사적인 대회장에 들 어서게 되였다.

주체38(1949)년 6월 어느날 선 생은 오매불망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제의 분렬 책동에 대처하여 광범한 애국력량 을 결속하기 위하여 소집된 대회로 서 남북조선과 해외의 70여개의 정 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모여 민족 의하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선생의 가슴은 마냥 높뛰였다. 한편으로는 민족자본가로서 반일 애국의 뜻을 품고 일본놈들과 담 당시 리승만의 반민족적행위는 을 쌓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공화 국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해 주겠는가 하는 위구심과 초조감

- P. - 1 - 1 - 1 ore

서 큰 기업을 한 자본가였고 부 자였던것이다.

선생이 이런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와 환호성을 한몸에 받으시 며 장군님께서 주석단으로 걸어

나오시였다. 회의장에 들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리에 앉으 시며 옆에 있는 허헌선생을 비롯 한 주석단성원들과 잠시 이야기 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가운데 리종만선생이 왔으 면 주석단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20성상 항일혈전을 벌려 조국을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옷깃을 여미고 주석단으로 오른 선생이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 어서시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 이 내세워주시다니…) 어쨌든 자기는 왜놈의 통치밀에 _ 며 남조선산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리종만선생을 오늘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선생이 년로한 몸으로 38°선을 넘어 먼길을 오시 느라고 수고하였다고, 나는 선생이 남조선의 산업건설협의회의 대표로 평양에 와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리종만

선생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 한데 대하여 훌륭한 애국적거사 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과분한 평가까 지 받고 너무도 송구하여 선생은 감격에 목메여 인사의 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 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선생과 뜻 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

선생은 해방후에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리승 만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 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애 국적지조를 높이 평가하고있으 며 국토완정과 조국의 번영을 위 한 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선생 과 같은 애국자들과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정녕 너무도 분에 넘치는 평가 였으며 값높은 믿음이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장장 해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신 데 나를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 리려 하자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 조가 있는 애국자라고 이렇듯 높 さ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 방직후 광범한 청년대 중을 민주주의기발아 래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19일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 기 위해 남조선의 청년 일군들이 평양으로 찾아

새 조국건설의 그처 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들을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행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이 잡아주시며 숙 소는 어디에 정하였는 가, 이곳에 와서 불편 한것은 없는가고 다정 히 물으시였다.

해있던 그들의 마음은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였다. 이날 남조선청년들이 그이께 올 리는 편지를 반가이 받아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 높은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통일 적자주독립국가건설에 궐기한 청 년대중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에 서는 모든 애국적청년들을 결속할 수 있는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주 청년동맹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 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고 하시며 남조선청년운동도 이런 방 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이것은 여러 갈래의 청년단체 가 있어 청년대중의 단결을 이룩 하지 못하고있던 남조선청년운동 의 실태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망라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청년조 직을 내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종파주의는 지난날 민족해방 운동뿐아니라 청년운동에도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면 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서 당시 남조선의 공산주의운동 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파벌적 경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청년대렬 내에 파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 안은 남조선청년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금시 답 답하던 가슴이 환히 열리면서 하 늘에라도 날을것만 같은 힘과 용 기가 솟구쳐올랐다.

남조선청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국인사들의 축복속에 민주애국청 그 이 의 인 자 한 놓칠세라 자자구구 새겨가면서 년동맹이 결성되였다. 물으심에 저으기 긴장 새로운 마음속결의를 다졌다.

올리기 위해 찾아온 남조선의 청년일군들을 또다시 만나주신 자기들의 대표들을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에 앞서 《그럼 통일된 다음 꼭 다시 며 따뜻이 바래워주시였다.

과 따뜻한 바래움을 받고 38°선을 이룩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넘은 이들은 남조선의 애국적청년들

을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러나갔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애국적청년 들을 하나로 결속해나가는 투쟁 은 어려움과 시련을 동반하지 않 을수 없었다.

그후에도 또다시 가르치심을 받 고저 찾아온 남조선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청년운동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남조 선청년운동의 기본방향은 광범한 청년대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조 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는것이라

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반동들의 민청해산책동을 반 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애국적인 청년들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 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

그후 남조선에서는 청년들은 물 론 대학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정 당, 사회단체들이 들고일어나 반 동들의 민청해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공화국북 반부의 청년들과 정당, 사회단체 들도 이 투쟁에 합세하였으며 세 계민청에서도 남조선당국에 항의 문을 보냈다. 이에 질겁한 반동 들은 하는수없이 민청을 인정하 지 않을수 없었다.

1947년 6월 서울에서는 민주애

남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은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인사를 1948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 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대회에도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해방후 북과 남에서 라고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납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 애국적청년대중을 민주주의민족통 일전선의 기발아래 하나로 묶어세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 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훈련 중단, 대화 재개 평화번영통일의 촛불을 듭시다



불구하고 끝끝내 강행된 합동군 사연습을 두고 남조선당국은 그 화될수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무슨 《북지역점령》이 들어간것 후과가 두려워 극도의 불안과 공 포에 떨고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참모 자지 못한다고 하였다. 회의를 런속 벌려놓았는가 하면 통일부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 속히 재개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정세악화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 군부것들은 그 무슨 《확고한 대 비태세》를 운운하면서 내부의 안 보불안을 눅잦혀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 가들은 합동군사연습의 사전연습 어지는 《팀 스피리트》, 《키 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되자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각 북은 런이은 담화를 통해 《엄청 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로 하 난 안보위기》를 경고하면서 기본 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

최근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 북이 예 은 잘 알려져있다. 고한 《엄청난 안보위기》가 현실 남조선당국이 불안을 금치 못하 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예로부터 죄를 지으면 발편잠을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에서 벌어 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

이번 하반기 지휘소훈련에 그 출수도 없는것이다.

진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 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북침핵전쟁 연습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 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군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에서 벌

해주고있는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방어적성격》과 《년 례적인 훈련》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죄악을 감추어보려는 한 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법이다.

연습실행과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였다는것 략적이며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

의 성격은 절대로 약화될수도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 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민족의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 번영은 과거 랭전시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매우 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실현 위험천만한 전쟁연습, 핵전쟁연습 될수 있다고 하면서 합동군사연 습중단을 요구하여 남조선 각계 층이 투쟁에 일떠선것은 결코 우 연한것이 아니다.

지어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에 서도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는 기 본요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민심에 역행하여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자루속의 송굣은 결코 감출수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 행한 남조선당국은 앞으로의 모든 그 규모와 형식이 어떠하든 침 후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하수인돌

남조선호전세력이 무장장 비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2021년 무기부속품자체 개발중장기계획》, 《2021년 국방중소기업지원사업시책》,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 행계획》,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 부속품등록제도》와 같은 각 종 계획들과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하고 여기에 막대한 비 용을 투입하고있는것이 실례 로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호전 세력들은 지난 8월 중순 잠수 무장장비의 대부분이 미국을 함을 넘겨주는 의식을 벌려놓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수입 고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남조선에서 여당이 추진하 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삿대질을 해대며 올려받치고있어 정국이 란장 판이 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것들은 더불 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명 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협박법》을 만들려 하고있다, 군부독 재때도 없었던 기괴한 책동 을 감행하려 한다고 떠들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 위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정부》와 여 당이 추진하고있는 《언론중 재법》의 연장선이라고 비난 하고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 우보수언론들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 《부적절한 선 출》이라며 여기에 적극 맞 장구를 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기자 협회, 언론로동조합, 방송기 자런합회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국민의힘〉 전신들 의 력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족적이 너무나도 선 명하다.》,《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의 주범들이 내로남 로 몰아 강제로 페간시키고

하다.

남조선에서

위

남조선의 여야당세력들

이 다음해 《대선》을 겨

냥하여 중도층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진 애를 쓰

진보, 보수의 리념보다

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

신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치적립장을 달리해오는

계층인것으로 하여 력대

적으로 정치집단들이 저

들에게 끌어당기려고 애

이런 중도층이 정쟁과

태정치에만 몰두하고있

는 정계에 반감을 가

지고 등을 돌려대고있다

롯한 보수야당세력에 대한

를 쓰는 대상이다.

는것이다.

례

CI

司

중도층은

패싸움. 상대방에 대한 식을 마련하겠다.》며 분

비방과 욕설과 같은 구 주탕을 피우고 《중도》를

특히 《국민의힘》을 비 있다고 한다.

하고 건조한 나라들의 대렬에 합류하게 되였다고 광고해댔 는가 하면 그 무슨 《대양해 군》으로 발전하였다, 무장장 비들의 자체개발에 주력하였 다고 허세를 부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 론, 전문가들속에서는 현 무 장장비실태의 취약성을 가리 우고 북에 비한 군사적렬세 를 만회해보려는데 그 목적 이 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 나오고있다.

틀린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군

한것으로서 고장이 잦은 반

불의 생주정을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언론개혁립법안

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화

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진보적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

체들의 의로운 언론활동을 악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면에 부분품조달이 어려운것 으로 하여 수리 및 정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한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 니라고 한다.

실례로 제21대 《국회국정 감사》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20대의 스텔스전투 기 **《**F-35A**》**를 막대한 비 용을 들여가며 해외에서 정비 해야 하고 4대의 고고도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2대가 부분품고장으로 정상적 인 작전수행에 참가하지 못하 고있다는 자료가 공개되였다.

결국 무기부속품을 자체 로 개발한다, 무장장비 《국 산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는 신문사 사장을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에 걸어 살해

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

환, 로태우 등 친미파쑈독재

자들의 언론탄압만행도 극심

막대한 자금을 들이미는것은 저들의 한심한 무장장비실태 에 대한 비난여론을 달래고 내부의 안보불안을 눅잦혀 보려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나

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억대 의 혈세를 퍼부어 미군수독 점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하 수인의 가련한 몰골을 가리 울수는 없는 법이다.

남조선군이 미국제무기로 장비되여있고 또 자체개발한 다고 하는 무장장비들의 경 우에도 핵심부분품들이 대 부분 미군수독점체들로부터 넘겨받은것이라는것은 모르 는 사람이 없다. 원래 정치

제창하며 이전 《참여정부》

가 보수신문들의 언론시장독

점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했

던 《신문법》을 개악하고 보

수신문들이 방송까지 겸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에 보답하여 보수언론들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

통령》들을 모함하여 정치적

타살을 빚어내는데 적극 가

담해나선것이 그 대표적인 반

력사적사실들이 이러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

보수패당은 《언론중재법개

이자들을 본따 리명박, 박 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초

의

도적이야 한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여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남조선이 그 무슨 무장장비 자체개발에 대해 떠드는것자 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 고 남조선호전세력이 무장장 비자체개발에 필사적으로 매 달리는것이야말로 가련한자 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 지 않는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무장장 비개발책동은 그렇지 않아도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군사적망동이며 그들의 대결적본성만을 낱낱 이 드러낼뿐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정안》을 놓고 막무가내로 반발해나서고있으니 무엇때 문인가.

《언론의 자유》, 《표현 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민 심을 기만하고 보수언론들을 부추겨 저들에게 유리한 흑 색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어떻 게 하나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보려는것이 《국민의힘》 의 진짜 속심이다.

《국민의힘》 패들이 아무 리 력사를 외곡하고 사실을 오도하며 갖은 행악질을 해 대고 적반하장식으로 놀아대 도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 은 없다.

언론탄압의 원흉인 《국 민의힘》이 해괴한 기만극을 그만두고 저지른 언론탄압죄 악, 언론길들이기행적을 자 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것 이 오늘날 남조선민심의 요

리 송 건

얼마전 남조선국 방부가 강원도 춘 있던 이전 미군기지에 대한 1차정화비용으로 수십억여원을 지급 했다고 한다.

《COVID−19》

를 비롯한 여러 악 재들로 하여 사람 들이 극심한 생활 고에 시달리고있는 지금 미군이 오염 시킨 땅을 정화하 기 위해 막대한 혈 세를 탕진하는것을 보면 뭘 주고 뺨 맞는 창녀신세라 해야 할것이다.

이미 알려진것처 럼 춘천시에 주둔 하였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여러곳 에서는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토양오 염이 확인되였다.

또한 시굴조사과 정에 아스팔트포장 재가 들어있는 페도 람통들도 발견되여 주변환경이 심히 오 염되여있다고 한다.

춘천시뿐이 아니다. 미군 이 틀고앉아있던 각지의 미 군기지오염실태도 마찬가지

남조선환경부의 《캠프워 커 반화부지의 토양과 지하 수환경오염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구시 에 있던 남조선강점 미군기 지 《캠프 워커》 직승기착륙 장의 토양,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곳의 건물내외부에서는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 된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결 과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 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 를 초과하였으며 그 검출면 적이 축구장 5개넓이에 해 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고

는 그 기준치를 14.8배나 넘 어섰으며 그것은 이곳이 거 주지역으로 쓰일 경우 주민 1만명당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량으로서 기준치를 훨 씬 초과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강원도의 녕월 과 경기도의 하남, 경상북 도의 포항 등 미군기지들 에서도 기준수치를 훨씬 넘 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됐다 고 한다.

이것을 단순히 남조선강점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로만 보 인가. 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남조선을 한갖 전 쟁연습터, 오물처리장으로밖 에 여기지 않는 미군의 시 각, 남조선인민들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치부하지 않는 강점군의 오만성이 낳은 죄 악이다

강점군이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타고앉아 더럽히고있 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주대 있는 소리 한마디 변변히 하 지 못하고 제 주머니의 돈까 지 섬겨바치면서 밑씻개질에 여념이 없는 얼빠진 망동에 대해서는 또 무슨 말로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국이 필요하면 전쟁연습 도, 세계최대의 미군기지까지 특히 1급발암물질인 비소 도 지어준다. 미국이 실컷 쓰 다 오염시킨 기지를 돌려받으 면서도 환경정화비용을 한푼 도 못 받아낸다. 조국강토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 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 직한 동맹인가.》라는 비탄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 고있다.

> 제 내키는대로 돌아치며 싸고뭉개는 강점군, 꿀먹 은 벙어리가 되여 뒤처리에 만 급급하는 남조선당국, 도 대체 그 땅의 주인은 누구

> > 김설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저라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 전면 개정히

힘》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

나로 못 만들면서 그 주제

에 《보수대통합》을 한다?

삶은 소 웃다 꾸레미터질노

릇이지. 《국민의 당》과의

합당이 왜 결렬되였는지 다

최재형: 그건 그래. 당

근혜역도들도 진보언론말살 불시위를 그 무슨 《배후론》 을 운운하며 《폭력시위》로

랄하게 탄압하고 그들을 감 옥에 끌어가다 못해 살인만 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한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조상들

남조선력사에 최악의 언론 말살범죄로 기록된 민족일 보사사건만 놓고보아도 그

당시 민중의 진로를 가리 키고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 며 근로대중의 권리를 옹호 하고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호소하는것을 편집사명으로 하는 《민족일보》의 언론활 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 기던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이 신문을 《빨갱이신문》으

중도층의 배척과 혐오감은

고있지만 결과가 없다고 지률은 날로 하강선을 그 때마다 자기의 독특성

도》는 매우 낮은것으로

바빠맞은 윤석열이 중

도층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중도

층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

표방하는 《국민의 당》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알수 있다.

실례로 전 검찰총장 윤

석열에 대한 중도층의 지 층)로 불리우면서 선거

리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을 시위한 중도층이 점

8월 20일 남조선의 한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

여론조사기관은 중도층에 의힘》의 《대선》예비후

서 윤석열에 대한 《호감 보들을 외면하고있다, 랭

에 날뛰였다.

2011년 리명박일당이 민 모독하고 남조선의 전직《대 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21》의 통일언론활동 을 《간첩행위》로 몰아 탄압 한 사실, 박근혜역도가 《리 적》, **《**종북》을 구실로 진 보언론인 《자주민보》를 강 제로 폐간시킨 행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극우보수집 권자들은 저들의 반인민적통 📗 치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 해 보수언론들과 사이비언 론, 어용언론들을 적극 내세 ▮ 워주는 책동도 집요하게 벌

리명박패당이 《실용》을

문가들은 예로부터 《스

에만 투표하지 않는 계

윙 보터》(어느 한 정당

점 보수야당을 멀리하고

담한 반응의 리유는 망▮

발과 특권의식,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중도층이 ▮

가장 싫어하는 보수세력 ▮

의 악습이 윤석열에게서

그대로 굳어진 모습으

그러면서 기성정치에 등

조 남 석

로 나타나고있다고 분석

하였다.

고 평하고있다.

대표에게 추파를 던지고있 을 돌려댄 중도층의 선택

지만 떨어지고있는 지지률 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운명을 결정하게 될것이라

최근 남조선항간에서 《국민의힘》을 보고 《좀 달라졌다.》는 말을 더러 합

《국회》의원경험도 없는 젊은이를 당대표로 내세우 질 않나, 당대 척을 지고있 던 호남지역에 가 허리를 굽 석이질 않나, 현 당국에 복 무했던 전 검찰총장이나 전 감사원장도 척척 받아들이 질 않나. …

그런데 《겉 볼 안》이라 는 말과는 달리 내부는 아 니구만요.

당지도부와 《대선》후보 들끼리 올리받고 내리누르 요. 주연이 후보들인데 조 후보들은 또 저들끼리 죽일 놈 살릴 놈 야단입 니다

좀 들여다볼가요

의 몫인데 왜 당대표가 오 라가라, 이리저리 해라 야 단이요? 명백한 월권행위요. 그러다 탄핵감 됩네다.

모르는 햇내기가…

홍준표: 저거 당을 개무 시하는거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더니 저런 얼치기들까지 흘러들어오니 께 하던가요?

보수가 아니라 《오수》라고 사람들이 욕하는게요. 리나 하는걸 보니. 그런데

최재형: 홍후보, 그 말 은 삼가합시다. 그리구 윤 씨, 《1일1망언》소리 듣기 싫지도 않소. 곁방살이하재 두 눈치가 있어야지.

윤석열: 《1일1망언》? 내 가 **《**120시간근무**》**, **《**불 량식품》 등 실언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엔 아닐거

리준석: 도적이 도적이야

거요?

한다더니 《멸치, 고등어》 소리는 누가 먼저 꺼냈습니

내 주변사람들이 다 《히에

나》라는 소리요? 아니 이

젠 사람들을 짐승취급하는

윤석열: 역시 아이는 아

이로구만. 외국만화영화소 다고 하는거요. 집안도 하

대표가 《분렬의 씨앗》, 《야권통합의 걸림돌》이

들 잊었소?

《멸치》, 《굴러온 돌》 대 《박힌 돌》 이렇게 치 고받기를 합니다. 당대표는 《변화와 세대 읊조리는 《얼굴마담》이

이것저것 긁어모으기는 했

부름법도 달라졌습니다.

보아도 《친박, 진박, 비박,

짤박, 결박》 뭐 이런 식으

로 불렀는데 지금은 《돌고

래》, 《멸치》, 《고등어》,

《사자》, 《히에나》, 《메

이전에는 《친리》, 《친

박》 하면서 계파싸움을

하더니 《돌고래》 대

돼지》, 《망구스》…

이전 박근혜 《정권》 시기만

지만.

로 올라가. 당대표가 옳다 진흙탕속의 개싸움을 벌리 마실수 없는것처럼 아무리

> 권력광들의 본성은 절대 김 정 혁

स्रा २४ ४। ५।

면 안되지. 그리구 말이 난 김에 《돌고래》가 《멸치》 나 《고등어》와 중량이 같 을수 있소? 그냥 《돌고래》 윤석열: 경선이야 후보들 가 된걸루 해두 될텐데 경선 이나 새나…

리준석: 자기를 《돌고 래》로 아는 모양인데 《돌 고래》 는 무슨, 돌굥이나 되 류승민: 쟈가 어느 별에서 겠는지. 후보들결에 《히에 온 애냐? 정치의 《정》자도 나》처럼 부추기는것들이 없 망구스와 같이 밝은 사람들 와 히에나가 마지막까지 함 거야?

《당대표 사퇴하라!》, 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자》 는 소리가 나오는게요. 그 게 당심의 반영이구.

류승민: 뭐가 당심이야? 야 윤석열, 너 《정권교체》 려 입당했니?

홍준표: 《당대표탄핵》 소리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지. 나도 생각이 굴뚝 같지만 참고있는데 입당한 어야겠는데. 거 메돼지나 지 얼마나 되였다구 《두 달짜리 아이》가 당을 장 과도 함께 하십시오. 사자 악해보겠다구 설레발치는

윤석열: 이러니 《국민의 실한 놈이 있다는 격으로

불만, 궁생해진

윤석열: 흥, 그래놓으니 될수 있다는 소리가 있긴 이 문제인가?

냥 밀고나가는수밖에. 류승민: 그렇단 말이야. 하려 입당했니, 당권교체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

면 옳은거야. • • • 이쯤해서 보면 《국민의 힘》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

실겁니다. 인물이 너무 없다 야단이 더니 이제는 너무 많아 야 단입니다. 쭉정이도 많으면 로 달라질수 없기에.

홍준표: 외로 가든 바로

되여버리고 그뒤에서 원로, 가든 서울가면 되는거야. 그 중진의원들이 날뛰는 《수 렴청정》체제로 바뀔 판입 니다. 권력을 위해 상하좌우로

는 《국민의힘》, 요강이 번 쩍인다고 그것으로 물을 떠 《변화》를 떠든다고 해도 지푸래기를 기둥으로 쓸수 없는 법입니다.

갈등의 씨앗, 재앙의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

남조선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대 통령》후보 윤석열측과의 갈등이 여론의 주요화제 거리로 등장하고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국민의힘〉 대표와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을 축으 로 하는 당내 갈등이 지 속되고있다.》고 보도하면 서 《윤석열에게 당대표 되는가 하는것이다. 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는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의 신경전이 본격적인 대선경 선을 앞두고 한층 더 고 조되고있다. 표면적으로는 확전을 경계하며 상황관리 에 애쓰는듯 한 모습이지 만 두사람간 감정의 곬은 잇달은 돌발악재로 손쓸 양상이다.》고 전하였다. 계속되는 갈등은 보수세 력내에서 윤석열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즉 그의 입당이 과연 《국민의힘》에 《복》으 로 되는가, 아니면 갈등 의 씨앗으로서 화근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끌어들이기에 왼심을 썼 간이 다가오고있다.》고 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 실이다.

여기에는 인기률이 좊 있다고 하는 윤석열을 끌 어들여 다음번 선거에서 권 력을 탈취해보려는 《국민 의힘》의 흉심이 깔려있다.

그런데 지금 굴러온 돌 인 윤석열이 《대통령》후 보로 출마한것도 모자라 것으로 만들려고 전횡을 없이 보여주고있다. 도리없이 깊어져만 가는 부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이 《당 당대표와 윤석열측의 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 보수령도권쟁탈의 시작》 이라고 보도한것은 우연 하지 않다.

> 지금 보수세력내에서는 윤석열이 《보수궤멸의 장본인》이라고 욕을 하 면서 그를 좋지 않게 보 고있다고 한다.

> 《국민의힘》내부에서 《윤석열대세론》으로는 다음기 《대통령》 선거에 서 승리할수 없다는 목소 리들도 울려나오고있지만 그만한 인물도 없는 보 수정당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을 껴안고 돌아가고있다.

사실들은 저들내부에 똑똑한 후보감이 없어 윤 석열과 같은 배신자들에 게 기댈수밖에 없는 보수 당자체를 완전히 자기의 당의 가련한 처지를 여지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당국의 일자 리정책과 방역대책 등에 대한 각계층의 불만과 비 난이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특히 고용상황이 최대로 2017년이후 140만명이 늘어

악화되여 로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당국이 일자리문제해결을 《집권공약 1호》로 내들고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내 온다, 일자리상황판을 내건 다 하며 일자리마련에 막대 한 자금을 퍼부었지만 현재

비정규직이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은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실업자는 2021년 상반기 에 491만 6 000여명으로서 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최 악의 상태에 직면하였다고 지 더해져 로동자들의 일자 전하였다.

높마가는

벌리고있다고 한다.

《자본과 맞서싸우는 이 땅 아가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심이 끓고있으며 8.15를 계기

의 해고로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며 죽어가고있 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 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 디에 갔는가. 왜 로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워야 하는가.》, 《거기에 ⟨COVID-19⟩ 까 리는 사라지고있고 삶은 더 하여 민주로총을 비롯한 더욱 피페해지고있다. 사회 각계층이 런속 롱성, 파업을 안전망은 느슨해졌고 로동자 들의 권리는 후퇴하고있으며 《지금 감염보다 더 무서 로동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은 운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등한시되고있다.》, 《저들은 해고, 차별과 불평등이다.》, 편하게 앉아 래일을 보고 살 방역, 홍보방역만 한다고 민

는 오늘만 보고 살아간다. 로동자들의 답은 결국 투쟁 이다. 해고에 맞선 투쟁만이 답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권

남조선로동자들의 웨침소리 이다.

한편 급속히 확산되는 악 성전염병사태로 방역학적거리 두기의 마지막 4단계를 실시 하면서 《짧고 굵은 방역대 책》과 《왁찐공급》을 력설 하고있는 당국에 대해 정치

로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박 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련 루되여 감옥살이를 하고있던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한 데 대해서도 각계층의 불만 과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의 땜질식 궁여지책의 일자리정책이 근 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 고있다, 무능한 《정부》가 요란하게 광고하고있는 일자 리는 가상현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 청 와대가 《일자리정부》를 표 방하였지만 《일자리실패정 부》로 락인되였다고 평하고

《방역실패정부》, 《일자 리실패정부》, 사법정의, 공 정경제, 《법치주의》 파괴로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한 현 당국에 대한 불만, 비난으로 들끓는 남조선민심 이다.

김 영 혁

H

언제인가 남조선의 출판물에 이런 글이 실렸 었다.

《… 〈3포세대〉는 불안정 일자리, 학자금대출상 기약없는 취업준비, 치 솟는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련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 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 집마련과 인간관계까 〈5포세대〉 도 생겨났다. 지금은 **〈**5포세

대〉를 벗어나 희망과 꿈까 지 포기한 〈7포세대〉, 모 든것을 포기한 (N포세대) 가 생겼다.》

글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에 직면해 암울한 청년세대 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속 속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최 근에는 《벼락거지》(집값 이 올라 더욱 빈곤해진 무 주택자), 《이생망》(이번 생 은 망했다는 의미), 《령끌》 (령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









련한다는 의미), 《빚투》(빚 을 지며 투자한다는 의미)라 는 말들이 나돌고있다고 사 회현실을 개탄하였다.

> 현재 남조선의 청년실업률 은 26.5%로 사상최고를 기 록하고있고 30여만명의 청년 들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앞날에 대한 리상과 포부 를 잃고 삶을 포기한 청년 들이 갈길은 비관과 절망속 에 잠겨 몸부림치든가 아니 면 살인과 강탈, 폭력 등 범 죄의 길에 들어서는 길밖에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20대, 30대 의 청년층에서 기성정치인들 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제일 높은것도 그들의 막막한 삶 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 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이 절망 에 빠져 한숨을 쉴 때 공 화국에서는 전혀 다른 격동 적인 현실이 련일 펼쳐지고 있다.

청년들이 시대의 주인공으 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 서 떠밀고나가는 위훈의 창 조자로, 미덕의 주인공들로 떠받들리우고있는것이다.

최근 공화국에 세차게 어번지는 청년들의 탄원열풍 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 후 남포시의 140여명 청년 들이 제일먼저 사회주의농 촌으로 진출한데 이어 지금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 고있다.

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순 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안의 청년돌격대들에 입대 한 청년들이 석탄중산으로 나라를 받들 굳은 맹세를 다지며 수천척 지하막장에 애국헌신의 첫 자욱을 뜨 겁게 새겼으며 평안북도에 서도 창성군안의 고급증학 교졸업생들이 창성군 인산 협동농장에 집단탄원한것 을 비롯하여 염주군, 박천 군 등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탄광, 광산, 협동벌로 탄원 진출하였다.

여기에 조국이 부르는 어려 운 곳으로 탄원하며 청년들 이 남긴 말이 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 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 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 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 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 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TV화면으 로 뵈오며 끓어오르는 격정 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 얼마나 고 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 도인가. 나는 결심했다. 나의 청춘을 그이의 어깨에 실린 중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 는데 바치자고.》(전 개성건 재가공공장 로동자 고선희)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 에 내가 설자리는 과연 어 디인가. 세포등판으로 탄원 하여 애국의 땀으로 빛나는 삶의 자욱을 새겨가겠다.》 (전 원산통풍기공장 로동자 신충렬)

《나라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를 푸는데 모든 힘과 지 혜,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깨끗한 량심과 실천으로 조 국을 받든다는것이 어떤것인 가를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 에 톡톡히 새겨주고싶다.》 (전 송림시 서광고급중학교 교원 리철)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인 가.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

청년들의 모습에 오늘뿐아 니라 래일의 조국의 모습이 비낀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 자기 를 바쳐가는 공화국의 애국 청년들, 절망에 빠져 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하는 남조선 의 청년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고결 한 충정으로 가슴끓이고 부 강조국건설의 앞장에서 애 국의 땀과 열정을 바쳐가 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있 어 공화국은 젊음으로 약 동하는 나라로 위용뗠쳐가고

본사기자 김 춘 경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몇해전 나는 조국을 다녀 온 동료와 마주앉았다. 서방 의 모략적이고 날조된 선전을 그대로 믿고 억측과 몰리해 지어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 갔다가 지구촌 어디서도 보 지 못했던 신기한 세계를 발 견하고 비로소 인식을 새롭게 했다며 친구는 흥분에 떠있 었다.

그날 친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중에서도 조국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상당히 발전되였다는것,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 을 마음껏 꽃피워주는 사 회주의교육제도가 부러웠 다는 감동어린 그의 말 에서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받은 감동 은 그후 조국방문의 나날 나자신이 체험한것이기도 했다.

몇해전 조국을 방문하였 던 나는 뛰여난 예술적재 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수 많이 키워내는 조기음악 교육기지로 소문난 경상 유치원에 한번 꼭 가보고 싶던 소원을 풀수 있었다. 평양의 중심부에 서방

0

세계에서 《곡선이 아름 다운 거리》라고 평하였 던 현대적인 창전거리가 있다. 조국방문기간 창전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타 원형과 원형의 다양한 형 태의 곡선미로 현대적인 건축미를 한껏 살린것이 퍽 인상적이였는데 바로 이 거리에 경상유치원이 자리잡고있었다.

두팔을 활짝 펴고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을 런 상케 하는 경상유치원앞 정 문에서 현숙해보이는 녀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기가 이곳 유치원의 원 장이라고 하면서 그는 폭신 폭신한 고무깔판을 깐 넓다 란 운동장에서 갖가지 유희 기재를 리용하며 좋아라 뛰 노는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원래 이 자리에 경상유치원이 있었는데 2012년에 창전거리 가 새로 일떠설 때 개건하였 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새로 꾸려진 우리 유치 원을 남먼저 찾아주시고 멋 쟁이유희기재들과 함께 손풍

금, 입풍금, 기타와 같은 악 기들과 현대적인 음향설비들 을 보내주시여 어린이들이 재 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도 록 해주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이 모셔진 1층 중앙홀에 들어서니 아롱 다롱 무지개빛을 발산하는 보 석을 깐 바닥이며 현란한 무 리등들로 하여 마치 황홀한 별나라에 온듯 한 심정에 휩 싸였다. 문득 평양산원을 참

관하면서 후대들을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위해 국 가에서 특별히 관심하여 산원의 중앙홀바닥에 깔 아준 보석을 보고 감동 을 금할수 없었던 그때의 심경이 되살아났다.

보석이라고 하면 자본 주의세계에서 권세와 치 부, 사치와 허영을 뽐내 는 돈많은 부자들이나 투 권층들의 점유물로, 탐욕 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인

생의 첫출발을 뗸 아기 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진귀한 보석주단을 아낌없이 펼쳐주고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원장선생의 안내를 받 으며 여러 방, 교실, 전 과실과 률동홀, 잠방, 식사실, 물놀이장을 비 롯하여 모든것이 어린이 들의 교육교양과 동심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진 유 치원을 돌아볼수록 경탄 을 금할수 없었다.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어 도 이곳 유치원처럼 어린이들 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투자 를 한 유치원은 보지 못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여

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음악 신동들을 많이 키워내고있습 니다.》

원장은 뛰여난 재능을 가 진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유 치원때부터 수재교육을 시 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들 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79년 5월 경상유치원에 음 악반을 내오도록 하시고 재 능있는 음악가후비들을 많이 키울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 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재중동포 김 영 란

61日可

정치는 인민의 리익을 지키고 삶을 돌보아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아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 지고있는 공화국과 달리 남조선에서의 정치는 특권 계급만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삶은 외면하고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 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 나?》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야당 의 한 《대선》 후보가 어느 도당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을레니 표를 달라는 기괴한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순》이라고 법석 떠들었다.

여느 사람도 아니고 다 라는 사람의 입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몰아갔다. 는 넉두리가 울려나왔으니 기가 찰 일이다.

겠다는 망언이 공개적으로 지경에 내몰다 못해 수백명 울리는 남조선정계이다.

가장 중요한 인민들의 삶은 게 하는 참변까지 빚어냈다. 정치의 외면을 받고있다.

철만 되면 국민을 위해 하늘 의 바다를 펼치였겠는가. 의 별이라도 따올듯이 별의 별 화려한 《공약》들이 울 려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이 리행되여 인민들의 삶이 나아진것이 쥐뿔도 없다.

의힘》은 언제 한번 인민의 어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 삶을 책임져본적이 없고 오 연한 일이라 해야 할것이다. ◊ 것도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히려 독재권력을 휘둘러 인 민들을 짓누르고 민생을

도타에 빠뜨리군 하였다. 수십년전 전두환군사파쑈 광주의 시민들을 《폭도》로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었던것

이전 리명박보수 《정권》 도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 음번 《대통령》을 하겠다 대하는 인민들의 평화적투 머 경쟁무대에 뛰여든 후보 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죽음에로

수년전 박근혜《정권》시 기에도 반인민적인 악정으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 로 인민들의 삶을 최악의 의 아이들을 배와 함께 바 따지고 보면 남조선에서 다속에 수장시켜 목숨을 잃 오죽하면 분노한 인민대중이 력대로 남조선에서는 선거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항쟁

돈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 고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풍토가 오래전부터 정 착되여온 남조선에서 인민 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 특히 보수야당인 《국민 항의집회와 시위가 련일 벌

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것이 당과 국가 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선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 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절대 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 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 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사회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

장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 기 위한 멸사복무로 일관되 여있다.

날과 달들은 다 인민에 대 내주었다. 한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흘

들로 엮어졌다. 지하는 수많은 공장들과 멋 쟁이거리들, 문화정서생활기 지들…

소중한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 법이다.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하 로 받들고 따르는 공화국은 루빨리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억만금도 아끼지 않고 나라 참다운 어머니조국으로 찬란 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는 히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 있는 감동적인 현실이다. 얼마전 함경남도에서 혹심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에 따라 함경남도당군사위원 회 확대회의가 신속히 소집 되고 재해지역 주민들의 생 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 한 긴급대책을 비롯한 여러 그에 따라 나라에서 보내

준 세멘트를 실은 렬차가 기 공화국에서 제시되는 하 적소리 높이 울리며 피해지 나하나의 로선과 정책은 어 역으로 달리고 피해지역 인 느것이나 다 인민들에게 가 민들에게 보내는 지원물자 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연 방 달려갔다. 온 나라 도 처에서 식량과 부식물, 생 활필수품을 비롯한 지원물 공화국이 걸어온 지나온 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

하기에 큰물에 집을 잃은 렀고 한해한해가 그런 사변 피해지역 인민들은 너무도 고마워 우리는 화를 당한것 최근년간에 우후죽순처럼 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일떠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 정말이지 잃은것보다 얻은것 이 더 많다며 목메여 격정 을 터뜨렸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이 모든것에 깃들어있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 을 울리고 민심을 틀어잡는

본사기자 홍범식

도 자 분 합

재미동포 조범수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는 원아들이 제일 훌륭한 환경에서 자라고있다는것이 사실인가?

어느 나라에서나 집없는 아이들, 부모잃은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 는 일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국가의 온갖 보살핌속에 제일 좋은 조건 과 환경에서 세상에 부럼없 이 배우며 자라고있다.

국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은 행복속에서 남달리 일찍 철 이 든다.

들에 가면 나라의 혜택속 이장들에서 마음껏 뛰논다.

에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 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도 원아들에게는 친어머니 들의 웃음소리… 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봐주 는 많은 엄마들이 있다. 잠 엄마, 아플세라 보살펴주는 엄마 등이 있어 엄마없는 설 음을 모르고 자란다.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예로부터 부모잃은 아이들 마련된 애육원과 육아원에서 은 고생속에서 남달리 일찍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철이 든다고 하였지만 공화 성장발육, 지능계발과 체력 단련에 도움을 주는 하루일 과들이 진행된다.

따스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 땅의 곳곳마다에 훌 재미나는 음악에 맞추어 체 륭하게 일떠선 육아원과 애 조를 한 후에는 맛있는 식사 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를 하고 훌륭히 갖추어진 놀

각이한 모양의 미끄럼대 들, 여러가지 인형, 지능놀 이감 등이 가득한 실내놀이

원아들이 기다리는 우리 말공부, 노래공부, 춤공부시 재워주는 엄마, 밥먹여주는 간도 서로서로 지지 않으려 는 은근한 승벽심속에 즐겁 게 흘러간다. 이뿐이 아니다.

> 식사시간이면 원아들은 붉 은게살튀기, 철갑상어찜, 칠 고루 먹는다.

해빛밝은 곳곳마다에 훌륭 하게 일떠선 초등학원과 중등 듯이 공화국에서 모든 원아 학원도 이와 다를바없다.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 들, 정보기술학습실, 외국 루를 보내고있다.

어학습실, 각종 동물표본과

리고 아늑한 침실과 한중탕. 세면장, 연회장을 방불케 하 낳아준 부모는 곁을 떠났 장의 여기저기에 넘치는 원아 는 식사실이 있는 학원에서 원아들은 자기의 재능과 꿈 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 아본 한 외국인은 《부모없 는 아이들이 이런 훌륭한 곳 에서 살고있는것이 실로 놀랍 다. 설사 친부모가 있다 해도 가난하면 불우한 운명을 면 할수 없는것이 자본주의사회 색송어졸임, 숭어탕을 비롯 의 실상이다. 이곳의 원아들 한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골 은 다 천사들이다.》라고 부러 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세상사람 누구나 부러워하 들은 따사로운 해님의 사랑 속에 기쁨과 행복의 하루하

박제품들, 다기능체육홀 그

본사기자









(1)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산 줄기들이 백두산에서 뻗어내렸다고 하면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일러왔다.

백두산은 량강도 삼지연시의 북서부에 위 치하고있으며 넓은 용암대지우에 높이 솟 아있다

명산중의 명산인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닻 을 올리신 때로부터 20성상 백두의 험산준령 을 넘고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항일혁명투쟁 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 민족의 성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해발 2 750m의 장군봉과 2 712m의 향도봉을 주봉으로 하는 수많은 봉우리들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채와 그가 운데 자리잡은 천지로 이루어져있다.

백두산의 명산적가치는 유명한 백두산천 지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자연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면적 9.16km, 최대깊이 384m, 둘레 14.4km, 길이 4.6km, 너비 2km이며 호수면 의 해발높이는 2 190.15m이다.

지구상에는 크고작은 호수들이 많고많지 만 백두산천지처럼 그처럼 높은 곳에 있는 깊은 호수는 없다.

백두산천지에는 1㎡씩 쉬임없이 퍼내도 수 십년간이나 퍼내야 할 정도의 맑고 깨끗한

동작이다.

뒤로 세바퀴돌며 옆으로

5바퀴돌아내리기 등 모든 기

교동작들도 세계적수준이다.

민족교예를 가리켜 《세계최

고의 교예》, 《관중들을 매

혹시키는 훌륭한 공연》이라

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것은

국제교예무대에서 조선의

물이 차넘치고있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물을 마셔본 해외동 포들은 정말 맑고 깨끗하다,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천지의 물은 우리 민족에게 활 력을 주는 조선의 생명수라고 찬사를 아 끼지 않았다.

여러차례의 화산분출과 그 진화발전과정 에 의하여 이루어진 백두산의 자연환경은 매우 특이하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어디 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해돋 이로서 제일가는 경치로 되고있다. 백두 산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의 천지조화가 일 어난다.

기후대별요소에 따르는 식물종구성상태가 다양하며 엄혹한 기후와 지질 및 지리적환 경에 적응된 짐승류, 새류를 비롯한 척추동 물과 무척추동물이 많아 자연동물원을 방 불케 하는 백두산지구는 1989년 4월에 유 네스코의 국제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남해가의 구재 봉까지 백두대산줄기가 뻗어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가 대대손손 살아온 이 땅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 되여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있는 하나의 강 토이며 우리 민족은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 아온 민족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 진 혁

-세계의-하늘가에-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 궄 성

2019년에 제14차 아시아사 격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930여명의 우수한 남, 녀 선수들이 참가한 선수권대회 는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쟁탈전을 동반한것으로 하여 관심을 모았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압록강국방 체육단의 김성국선수는 남자 10m공기권총사격경기에서 강 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 대회 남자10m공기권총사격경 기 결승경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두명

한명은 세계 새 기록보유자 인 다른 나라 선수였고 다른

나 사는 희귀한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재빛밤색이다. 잎은 빗살형태로 붙어있는

솔방울열매는 길이 5~8cm 의 긴둥근모양이며 다음해에

나무는 15년까지는 더디게 자라고 그 이후부터는 빨리 자라며 번식은 씨앗, 가지심

째 경기에서는 승부가 결정 되였다. 김성국선수가 세계 새 기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점수를 기록한것이다. 그 기록은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으로 되였다.

될것인가.

한명은 공화국의 김성국선수였

다. 이런 경우 점수차이가 날

과연 승부는 어떻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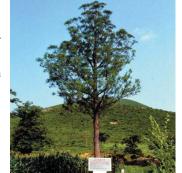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점

수는 같았다. 그러나 세번

때까지 경쟁을 벌려야 했다.

그는 우승후보자로 지목되 였던 세계 새 기록보유자를 누르고 아시아선수권을 보유 하였을뿐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의 영예 를 지니였다.

그는 2019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중의 한명으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널뛰기》, 《바줄타기》, 《말타는 무 《상모놀이》,

공화국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는 민족교예종목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다른 교예

종목들보다도 민족교예종목 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전통적인 민족교예종목들 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 족의 넋과 기상, 우리의 고 유한 생활감정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국립교예단의 박소운연출가 는 《민족교예작품은 주체교 예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개화발전하여온 우리의 민족 교예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 의적내용을 담은 주체교예로 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 려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해방후부터 민족교예종목에 힘을 넣고 끊임없이 발전시 켜오고있다.

많은 민족교예종목들중에 서도 널뛰기종목은 공화국에 서 민족교예를 대표하는 얼 굴이라고 할수 있다.

봉건의 질곡속에 바깥출 입도 제대로 못하던 녀성들 이 바깥세상을 너무 보고싶 어 담장곁에 널을 놓고 뛰여 논데서 유래된 녀성들의 놀 이가 오늘은 인기있는 민족 교예종목으로 발전한것이다. 국립교예단에서 창작한 널

뛰기종목은 1983년 영국에 서 진행된 제8차 세계교예선 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 한 후 제11차 몽뗴까를로국 국제교예축전을 비롯하여 여 러 국제교예축전들에서 째인 기교와 예술적형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장대우에서 뒤로

국립교예단에서는 발전하

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널뛰 기종목을 비롯한 민족교예종 3바퀴돌아내리기는 세계적으 목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로 난도가 매우 높은 기교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 을 바쳐가고있다. 뒤로 5바퀴돌아내리기와

우연하지 않다.

널뛰기종목에 출연하는 최 은옥배우는 《작품창작을 위 해 력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훈련이 힘들지 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을 빛내여간다는 긍지로 가 슴이 뿌듯해진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한일 혁



천연기 성을

옹진왕삼나무는 황해남도 옹진군에 있는 옹진식물원에 서 자라는 나무이다.

29.7m이고 뿌리목둘레는 가슴높이둘레는 1.2m

무갓둘레는 21.5m이다.

왕삼나무는 삼나무과에 속 하는 사철푸른바늘잎키나무 옹진왕삼나무의 높이는 이며 해발 1 500∼2 500m에 서 자란다.

가장 오래 사는 나무중의 이며 나무갓너비는 4.2m, 나 하나로서 2 500~4 000년이 가시바늘모양이다.

붉은 밤색으로 여문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 이 땅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분포되여있는 3 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삼천리라는 말은 북남의 최대길이가 1 143.59km로서 로부터 나왔다.

조선은 예로부터 산천이 비 단에 수를 놓은듯이 아름답 다는 의미에서 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다.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지리 산, 한나산을 비롯하여 그 어 디에나 수려한 산이 있고 넓

또한 뚜렷한 사계절에 따 르는 아름다운 경치는 이 세 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때문에 예로부터 이 땅을

단편소설

사 랑 하 노 라

성, 그림 김 윤 일

그는 격분한 나의 눈빛을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똑 바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

《자기의 심혈이 깃든것이 기때문에 반드시 써야 한다 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동무에겐 없습니다. 난 동무 가 눈을 높이길 바랍니다.》 《눈이요?…》

온몸에 일어나는 오한을 억제하지 못해 목소리가 뗠

《어떤 눈말인가요? 우리것 보다 외국제를 더 높이 보는 그런 눈말인가요?》 내 말에 그는 흠칫 놀랐다.

나의 쌀쌀한 눈빛에 모욕 을 느낀듯 했다. 몇초동안 폭풍을 배태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묵묵히 서있던 그는 아 무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말

았다. 실에 혼자 남은 나의 눈 앞에는 지금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4년전의 수수하고 소 박한 대학생의 얼굴이 나타

났다.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들 과 친척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며 자란 내가 멋진 수입 제학용품을 자랑하며 쓸 때 나의 뒤책상에 앉은 정인은 군가방공장에서 생산한 수수 한 가방과 학습장, 원주필을

어느날 항상 조용하던 뒤책 상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것 을 들은적이 있었어. 《정인 동지, 이건 우리 동무네 아버 지가 외국출장기념으로 준 원 주필인데 쓰십시오.》 옆동무의 말에 한동안 대

답이 없었다. 대체로 조용한 사람들이

그러하듯 정인도 불필요한 말은 웃음으로 처리해버리군 하였으니까. 하지만 이번만 은 웃음이 아니였다.

《고마워, 한데 난 내가 쓰는게 좋아. 우리 고향에서 만든것이니까.》

《?···**》** 조용한 그 말이 웬 일인지 내 가슴을 울렸었지. 수수하 면서도 자존심을 지킬줄 아

는 사람. 그의 실력은 인정하기 싫었 어도 그 자존심만은 높이 사

고싶었던 나였다. 그런데 동무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동문 나의 창조물을 부정 해버리면서 자기자신도 부정 해버렸다는걸 아나요? 그토 록 이 땅의 모든것을 사랑 할줄 알던 그 심장을 말이

예요. … 하루종일 우리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다.

그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 던 나는 분석소앞에 서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눈부시게 하얀 목달개와 티 한점없이 반짝거리는 까 만 구두가 눈에 띄우는 바로 그 사람이 웬 처녀와 이야기 를 하고있었다.

하얀 양복을 입고 굽실굽 실한 머리를 내리드리운 처녀 는 무척 아릿답고 순진해보 였다. 무슨 말을 했는지 처 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 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집 게 웃었다.

이상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유정동무, 정인동무가 어떻소? 내가 소개해줄가?》 하고 소장이 어제 웃으며 하 던 말이 떠올랐다.

아니, 난 사양할거야. 한 번도 저런 사람을 사랑할수 있다고 상상해본적이 없다.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이다. 허영에

뜬 인간!… 《뭘 생각하길래 앞에 있 는 사람도 못 보오?》

눈앞에 재색의 양복을 단 정하게 차려입은 대학시절 담임선생님이 서있었다. 머리 에 흰서리가 내렸어도 단정하 고 사색적인 그 모습은 변하 지 않았다

늘 나에게 선택할 기회

가 생기면 힘든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 알가?… 던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 분원에서는 그의 무엇을 보고 실장으로 추천했을가?

《정인동무가 실장으로 왔 다지?》

였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중에서 제일 쟁쟁한 인재라고, 오늘 은 처녀실장이 되고 래일엔 처녀원사가 되라고 등을 두드 려주시던 선생님이였다. 그런 데 뭐라고 대답한단 말인가? 선생님은 말없이 나의 눈 사람들을 실망시키고있는지

외국류학생이여서?… 나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 을 지었다. 다음날 정인은 출장을 떠

났다. 한달이나 걸리는 장기

출장이였다.

《아니, 넌 선을 보라는데 왜 그렇게 싫다는거냐? 파마 약이 성공한 다음에 보자는



들여다보시였다. 맑고 정직한 선생님의 눈 동자에 나의 괴로운 눈빛이 그대로 비쳐지는듯 해서 두 려웠다.

선생님은 언제나와 같이 말없이 나를 바래워주었다. 변함없는 기대를 느끼며 나 는 걸어갔다. 선생님은 정인동지를 만났

을가? 나처럼 실망하셨겠지?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건 뭐냐? 파마약이 네 결혼 지참품이라도 된다는거냐?》 아까부터 어머니는 온통 시약냄새밖에 나지 않는 딸 의 옷에 향수를 치며 지청구

집안의 하나밖에 없는 외 동딸을 남못지 않게 내세우 고 시집을 잘 보내고싶은 어 머니의 소원을 나는 너무나 많이 외면해온것이다.

를 들이대고있었다.

《파마약인지 뭔지 성공하 로 연구소로 돌아왔다.

이 땅에는 백두산, 금강산,

길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 엄 마 머리가 희겠구나.》 어머니의 푸념에 나는 조용 히 웃었다.

엄마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시 는분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인 우리 파 마약을 빨리 성공시켜야 한 다고 벌써 두차례나 말씀하

엄마, 이 파마약의 성공을

셨어요. 우리 녀성들을 우리의것으 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자 고, 그래서 우리 거리가 밝 아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 고 우리 래일이 더 밝아지게 해야 한다고.…

사랑이 있다는걸 엄만 모르 지요? 뜨거운 사랑이… 이제 성공한 다음엔 엄마가 하자는대로 다 할게요. … 나는 아직 별이 총총한 새

이 작은 파마약 하나에도

벽에 집을 나섰다. 고요한 거리에는 누구도 없 었다. 이럴 때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문득 그런 사람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분명 나보다 더 륭하고 멋있겠지. 인생의 먼 길을 동요없이 걸어갈수 있 는 강한 의지와 풍부한 지성 의 소유자… 그는 어디에 있 을가?…

새로운 보조제를 도입한 마

지막실험이 드디여 끝났다. 출장길에 올라 전국각지를 돌며 대대적인 파마약도입에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깨끗 이 처리한 나는 기쁜 마음으

고 비옥한 들이 있으며 맑은 강하천과 무성한 숲이 많다.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러

본사기자

첨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반 기에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 문대인 경주첨성대를 건설하 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 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주첨성대는 기단, 몸체 그우에 올린 4각돌귀틀로 이 루어졌는데 기단은 네모나고 몸체의 가로자름면은 둥근데 모두 화강석으로 다듬어 만 들었다.

첨성대의 높이는 약 9.1m 이다

기단의 평면은 방형으로 생겼고 그 한변의 길이는 약 6m이며 네면은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정확히 가리키 고있다. 가로자름면이 둥근 몸체는 기단의 중심에 놓 였다. 몸체의 밑직경은 약 4.9m, 우의 직경은 약 2.9m 이다.

몸체의 륜곽선은 처음에 수 직으로 올라가다가 차츰 몸 체의 통이 좁아지면서 곡선 으로 올라갔다. 첨성대몸체의 이러한 곡선은 첨성대와 같은 좁고 높은 구조물을 돌로 쌓 는 경우 자기 질량과 바람의 힘을 다같이 옳게 타산한 가 장 합리적인 곡선으로서 구 조물을 매우 튼튼하게 한다.

그러기에 첨성대는 그것을 세운지 1 350여년이 지난 오 늘에 이르기까지도 보존되고 있는것이다.

경주첨성대는 안정되고 아 름다운 곡선을 이루도록 하 였을뿐아니라 돌사이에 아무 러한 점착제도 쓰지 않고 쌓 아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까지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 로 전하고있다.

경주첨성대는 현존하는 세 계의 천문대가운데서 가장 오 래된것으로서 당시 우리 선조 들의 천문학발전의 높은 수 준과 건축술을 보여주며 세계 문화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 지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 정직한 사람의 자식은 굶 어죽지 않는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 면 남의 사랑을 받고 동정 을 얻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 르는 말.

◆ 눈앞에서 자랑말고 뒤에 서 꾸짖지 말라.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헐뜯는 간교한 행동을 하지 말 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

◆ 내 물건이 좋아야 값을 받 는다. 제앞이 떳떳해야 남에 대

해서도 떳떳하다는것을 이르 는 말.

통일 신 보 사 주소:평양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